

이스트스프링 글로벌온콜로지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023년 07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이하 "피투자펀드")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는 종양학 분야(암 연구, 진단, 치료 등)의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성과로부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억 원

-글로벌온콜로지증권모(미달러)[주식-재간접형] 6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100% 이하
-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E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F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3년 07월 17일

벤치마크 MSCI World(Net Return) Index(USD) 95% + Call Loan(KRW)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월 증 환해지 비중 91.8%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8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9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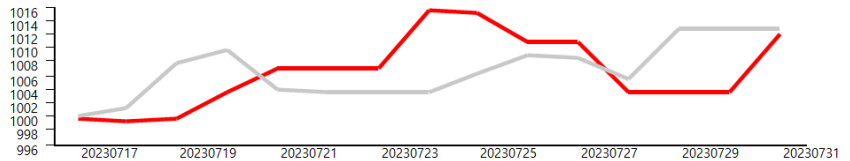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	-	-	-	-	-	-	1.21%
클래스 C-E	-	-	-	-	-	-	-	1.21%
클래스 C-F	-	-	-	-	-	-	-	1.19%
클래스 C-P2(연금저축)E	-	-	-	-	-	-	-	1.18%
벤치마크	-	-	-	-	-	-	-	1.29%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 상기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언급된 수익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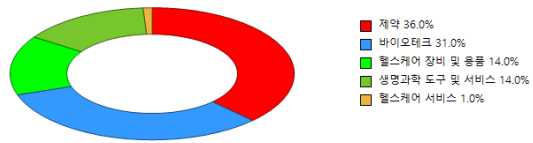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3년 07월말 기준,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자산배분현황> - 피투자펀드 기준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3년 07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종목명	비중(%)
MERCK & CO INC	8.7
ASTRAZENECA PLC	8.7
ROCHE HOLDING AG	7.2
REGENERON PHARMACEUTICALS INC	5.5
SIEMENS AG	4.8
HOLOGIC INC	4.6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4.0
DANAHER CORP	3.7
DAIICHI SANKYO CO LTD	3.5
E MERCK KG	3.4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E : 총 연 0.965% (판매 0.5%)
- 클래스 C-F : 총 연 0.495% (판매 0.03%)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81% (판매 0.345%)

(공통사항)

운용 0.42%,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7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투자 심리를 뒷받침 하였고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높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소폭 강세를 보이다 월말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방어 업종으로서는 부진한 역할을 보였습니다. 펀드에서는 의료 기술부문에서의 종목선택이 부진하였습니다. 소형주와 대형주는 흐름을 같이 하였으며 모두 개별 기업의 임상, 뉴스, 수익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중 종양학 뉴스 흐름은 약한 모습을 보였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펀드매니저는 헬스케어 업종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는 저평가되어 있고 헬스케어 업종의 가치평가는 합리적이며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부문은 의료 혁신과 주목할 만한 발전, 기술 습득,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펀드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